

# 법정사지 항일운동 사적지 지정

## 서귀포시 2005년까지 43억 들여 성역화 안후상씨 '보천교도의 난 왜곡' 논문서 밝혀



제주도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지 전경.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무오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가 제주도 기념물(제61-1호)로 지정돼 성역화된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10월 27일 "지난 1918년 법정사에서 제주 항일운동이 처음 일어났으며,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에 항거했던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돼 사지를 사적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역화 계획만 세운채 제주도의 사적지 지정 보류로 사업을 중단해 온 서귀포시는 11월부터 2005년까지 총 42억8천만원을 들여 위패 봉안소와 상징탑 건립, 사찰유적 보전·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무오년 10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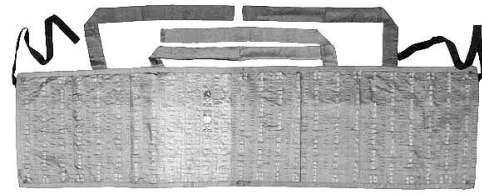
우란분절법회에서 김연일(법정사 주지) 방동화(불교 조계종 초대 총무총장)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중 장림호 김상언 최태우 스님과 행자 김윤옥 등 승려 13인을 비롯 주역 33인과 주민 400여명이 '왜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격문을 발표 한 뒤, 서귀포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봉기운동이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등에 '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졌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1996년 12월 안후상 씨(고창북중학교 교사)가 '무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을 서울대 <종교학 연구>(제15집)에 수록해 왜곡된 역사를 규명한 바 있다. (본지 41호 116호 298호 308호 참조)

안후상 씨는 논문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워낙 커 당시 '방스님 난리'로 불리워졌을 정도였음에도 일제는 전통불교가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물고개 파급을 우려해 주역 33인중 한사람인 박명수 씨가 보천교 수사라는 이유로 '보천교도의 난'으로 비하시켰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대각국사 가사' 민속자료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0월 28일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삼보명자수 가사(사진), 쌍룡문직은 가사, 용문자수 탁의등 3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유물은 조선 후기 불교 복식사와 자수 및 직물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 품계인 25조로 구성된 '삼보명자수 가사'는 가사 전면에 불보살의 존명과 경전 이들을 치밀하게 수놓은 수작으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의 네 모서리에는 '천' '왕' 자가 수놓아져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죽오와 절구 찻는 토기가 꼼꼼하게 수놓여 있다.

'쌍룡문직은 가사'는 쌍룡문단을 바탕으로 사용한 9조 가사로, 조선시대 불가와 궁에서 사용된 직물에서 볼 수 있으며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법상의 달개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문자수 탁의'는 전면에 용과 구름 문양 등이 장식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성수만년의 글이 십자 형태로 새겨져 있다.

### '제2회 한·일 찬불가 교류행사' 개최

한일 양국 불자들의 찬불가 합동공연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과 일본 북해도 양원사(주지 이즈모지)는 한·일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제2회 한·일 찬불가 교류 행사'를 12월 11일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하유 스님의 법고와 청고복을 시작으로 동산 불교대 아미타합창단의 합창, 동산풍물예술단의 사물놀이, 일본 오오다니대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의 피아노, 플루트 연주와 일본 양원사합창단의 합창, 한국중앙단의 찬불가 공연, 한일연합합창단의 합창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02) 723-1206 김은경기자

### 도갑사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

영암 도갑사는 10월 31일 도갑사 사적비 제작식과 제1회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제작된 사적비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도갑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작식에 이어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도선국사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작년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가 출간한 도선국사 관련 문헌자료집 <예토에서 정토로>를 바탕으로 도선국사의 탄생에서 출가까지의 과정과 도선국사전설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는 '도선국사 출가 장소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선국사의 출가 장소로 알려진 월유산 화엄사는 지금의 구례 화엄사가 아니라 영암 월출산 월암사"라며 "경보가 돼 절의 도선국사의 출가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 몽치면 지역포교 문제 없어요

### 남양주 도법사 조양자·이수남·김동숙 보살

10월 25일 남양주 도법사의 초하루법회에 참석한 조양자(63) 이수남(58) 김동숙(52) 보살은 새로 부임한 지 채 6개월이 안된 주지 덕원 스님이 지역포교의 큰 원력을 펼 수 있도록 돕는 불자들이라. 법당 청소는 물론 공양간 일손을 돕거나 다른 불자들의 시중까지 책임진다. 부임 후 첫 법회 때 참석자가 2명 뿐이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덕원 스님에게는 이들의 도움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양자 보살은 도법사에 나오는 불자들의

필 때마다 신도들을 끌어가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겪는 신도들의 혼란이 그것이다. 조 보살은 "주지 스님은 때가 되면 바뀌더라도 신도들의 행동을 저해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털어냈다.

반면 이수남 보살은 자신이 겪은 영험을 들려주었다. 이 보살이 도법사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82년. 남편을 따라 절에 나오기는 했지만 시집오기 전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탓에 신심이 깊지 않았다. 지난 4월 갑자기 쓰러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병원 저



조양자(왼쪽 두번째) 이수남(왼쪽 첫번째) 김동숙(왼쪽 세번째) 홍금분(오른쪽)보살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 조양자-불자들의 큰언니

### 이수남-딸 병 호전 믿음 생겨

### 김동숙-삶의 희망 심어준 곳

큰언니 역할을 하는 일꾼이다. 또한 주지스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신도들을 움직여 묵묵히 돕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 보살은 어렵게 꾸려진 신도회의 회장직을 맡았다. 그렇지만 신도회장이라는 권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회생정신으로 신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다. 주지스님이 바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찾아가던 곳이 한동안 발을 끊었던 도법사였다. 덕원스님은 이 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권했다. 스님의 말대로 기도 정진한 이후 딸의 병세가 빠르게 호전됐다. 이 일로 이 보살은 도법사에 오지 말라고 말려도 찾아와 절 일을 돕는 불자가 됐다.

도법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김동숙 보살은 20여년간 남편이 추락사고로 1급 장애인인 되고 난 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셨다. 그런 그에게 도법사는 힘들게 살아온 삶에서 희망을 심어준 곳이다. 늘 그의 옆에는 많은 도반들이 있었고, 또한 부처님이 있었다. 자신이 받아 온 고마움을 도반들에게 회향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박봉영 기자

## 외국 스님과 영어로 법회를!

대전 유성구 학하동 탄허문화재단 자광사(주지 청아)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진행하는 영어법회(Dharma Talks in English by Foreign Sunims)가 열린다.

매달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적광전 3층에서 열리는 영어법회에는 11월 9일 무진(Mujim), 12월 14일 청고(ChongGo) 스님이 법문한다. 이어 2004년 열리는

주지 청아 스님은 "영어법회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일조하고, 국내외 외국인 스님들에게 적극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영어권 외국인 불자들이 뿐 아니라 국내의 지식층에 포교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 대전 자광사 이달부터 매달 '영어법회' 개최

### 무진, 청고, 현각, 지광스님 등 법문 예정

스님의 선정기준은 조계종과 외국의 청정계단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외국인 스님으로서 수행이 훌륭하고 능숙한 영어로 법문을 할 수 있는 스님이다. 문의 (042) 822-9220

김원우기자

한편 자광사는 내년 4월 이후 진행되는 2차 영어법회 법사추진을 받고 있다. 법사

### 추천의 말

덕원스님 도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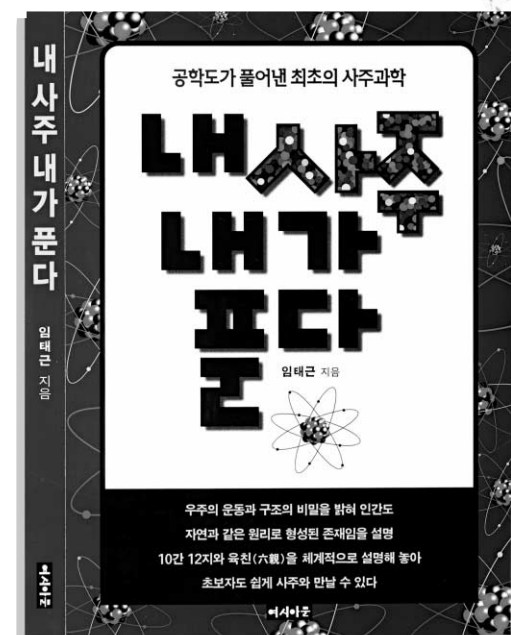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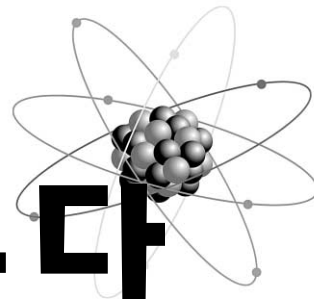
처음 도법사에 왔을 때 신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수남 홍금분 조양

### 사찰, 신도들에 큰 힘

자 보살 같은 불자들이 후원자가 되어준 거지요. 세 보살은 이전 신도들을 다독이고, 새로운 신도들을 바른 부처님 법으로 안내해 줍니다. 지금 도법사가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은 세 보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 내사주 내가 본다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거친 원광석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할 도심지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 및 증제하는 장소
- 申金: 물이 생긋는 구획된 도시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낙엽 지고 매마른 땅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공와용신(中和用神)을 설명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아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